

1 개요

삼공본풀이는 운명의 신인 가믄장아기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가믄장아기는 자신의 타고난 운명대로 산다고 말하였다가 부모에게 쫓겨났으나 마퉁이를 만나 마 파던 구덩에서 금덩이를 얻어 부자가 된 뒤에 걸인잔치를 하여 맹인거지가 된 부모를 상봉하여 눈을 뜨게 하였다.

2 내용

옛날 강이영성이 서불과 홍운소천궁에 궁전궁납이 윗마을과 아랫마을에 살았다. 강이영성과 홍운소천은 걸식을 하며 살다가 서로 만나 혼인을 하였다. 첫째 딸을 낳으니 사람들이 은그릇에 가루를 타다가 먹여주니 은장아기라고 이름 지었다. 둘째 딸을 낳으니 사람들이 놋그릇에 가루를 타다가 먹여주니 놋장아기라고 이름 지었다. 셋째 딸을 낳으니 나무바가지에 가루를 타다가 먹여주니 가믄장아기라고 이름 지었다. 가믄장아기가 태어난 뒤로 점차 살림이 펴서 부자가 되고, 아이들은 고이 자라 열다섯이 넘어가게 되었다.

하루는 비가 촉촉 내리기에 강이영성 부부가 심심해서 딸들을 불러 누구 덕에 사느냐고 물었다. 은장아기와 놋장아기는 하느님 덕, 부모님 덕이라고 대답하나, 가믄장아기는 하느님 덕, 부모님 덕이기도 하고, 자신의 배꼽 아래 선 금 덕이라고 대답하였다. 강이영성은 크게 노하여 가믄장아기를 내쫓았다. 가믄장아기는 하직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났다. 강이영성 부부는 그래도 가믄장아기가 염려되어 은장아기, 놋장아기를 내보내어 살피게 하였다. 은장아기, 놋장아기는 아버지, 어머니가 때리려고 하니 어서 가라고 오히려 내쫓는 바람에 지네와 버섯으로 변신하는 별을 당하였다. 강이영성 부부는 두 딸이 되돌아오지 않자 어찌 된 일인지 확인하려고 뛰쳐나가다가 문 지방에 눈이 걸려 맹인이 되었다. 그리고 곧 재산이 없어져 다시 걸인이 되고 말았다.

가믄장아기는 검은 암소를 이끌고 돌아다니다 산중에서 허름한 오막살이를 발견하고 묵게 되었다. 그 집은 마퉁이네 집이었다. 마퉁이 3형제 가운데 막내가 마음씨가 좋아 가믄장아기는 막내 마퉁이와 동침한 뒤 부부가 되었다. 다음 날 마퉁이가 마 파던 곳에 가보니 구덩이에 금덩이가 가득하였다. 가믄장아기 부부는 금덩이 덕에 큰 부자가 되었다.

가믄장아기는 부모 생각이 간절하여 걸인잔치를 하기로 하였다. 걸인들이 모여드는데 강이영성 부부도 찾아왔다. 가믄장아기는 강이영성 부부에게는 음식 대접을 미루라고 해둔 다음 따로 청하여 만났다. 부모에게 그간 살아온 내력을 말하라고 하니 강이영성은 살아온 내력을 풀어내었다. 가믄장아기가 자신의 존재를 밝히자 강이영상 부부가 크게 놀라는 바람에 눈을 뜨게 되었다.

③ 특징

삼공본풀이는 강이영성 부부가 복을 타고난 가믄장아기를 얻고는 부자가 되었으나 가믄장아기를 내쫓자마자 곧 걸인이 되고 다시 가믄장아기를 만나자 복을 회복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믄장아기는 자신의 타고난 복을 믿고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삼공본풀이는 흔히 <내 복에 산다>계 설화와 같은 전승이라고 하며, 서동설화와도 연결되는 것으로들 이야기한다. 제주도 무속에서는 ‘노불리’라고 하면서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와 함께 무속의 중요한 근원을 담은 신화로 친다.

④ 핵심어

강이영성이서불, 홍운소천궁에궁전궁납, 은장아기, 놋장아기, 가믄장아기, 검은 암소, 마퉁이, 금덩이, 걸인잔치, 걸인, 맹인, 배꼽, 선 금

⑤ 원전 서지사항

삼공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⑥ 관련 자료